

#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현주소\*

이현송  
(한국외국어대학교)

## 차 례

- I. 서론
- II. 다문화주의의 전개
- III. 다문화주의의 현주소
- IV. 토론 -미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미래

## 1. 서론

미국은 식민지 시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각지에서 이민자를 계속하여 받아들였으므로 미국인의 인종 민족의 다양성은 극에 달한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모여 살면 필연적으로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하나의 사회와 문화로 아우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한 사회에 문화, 즉 언어와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른 집단이 여럿 존재할 경우 사회적 권리와 문화의 주도권을 싸고 집단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근래에 활발하게 전개된 다문화주의 운동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권리와 문화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이제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다문화주의 운동은 미국과 같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언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김옥동, 1998).

이 글에서는 다인종민족 사회인 미국에서 20세기 후반에 전개된 다문화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과 현주소를 점검한다. 1950년대 민권운동에서부터 출발한 주류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도전은 1990년대 다문화주의 논쟁을 거치면서 점차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사회에서 다문화주의 운동은 외견상 쇠퇴한 모습을 보인다. 미국의 학계나 문화계에서 다문화주의를 언급하는 경우를 과거처럼 자주 찾아보기 어렵다. 근래에는 "탈에스닉(post-ethnic)" 혹은 "탈다문화주의"(Post-Multiculturalism)라는 새로운 이론까지 등장하였다(Hollinger, 2006).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면에서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를 정리한다. 하나는 다문화주의 운동 전반에 대하여 정리하는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문화주의 운동의 원인과 경과 및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과 199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주의가 쇠퇴한 이유를 정리한다. 다음으로 미국인들이 소수 인종민족에 대해 실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 자료를 통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인의 다인종 다민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다문화주의 운동이 반세기 동안 진행되었으므로 미국 사회는 소수인종민족의 문화에 대해 상당히 관용적이 되었다. 그

러나 식민지 시대 이래 미국 사회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동화주의, 즉 소수 인종민족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버리고 주류 집단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이념은 쉽게 가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 자료를 통해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미국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 2. 다문화주의의 전개

### 1). 다문화주의 운동의 배경

다양한 인종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에서 다양성과 통합의 문제는 20세기 중반까지 거의 제기되지 않았다. 이질적인 요소를 허용하지 않는 억압적 분위기가 미국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는 1950~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산물이다. 민권운동은 그 당시까지 미국 사회에서 거의 부동의 지위를 차지하며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졌던 영국계 백인 개신교도(WASP)를 주류로 하는 사회문화적 지배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

물론 백인의 사회문화적 지배권(hegemony)에 균열이 발생한 더 근본적 원인은 이차세계대전에서 찾을 수 있다. 나치의 백인 중심의 자민족중심주의가 빚어낸 유대인 대학살(holocaust)은 서구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어 놓았다. 미국의 인구통계조사에서 백인의 범주에 유대인을 포함하지 않던 관행은 이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백인 인종 구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Noble, 2000). 서유럽인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중동인 및 북아프리카 인을 백인의 범주에 포함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미국 사회에서 동질성의 핵을 이루던 서유럽인 중심의 백인 이념에 균열이 시작되었음을 말해준다(Fredrickson, 1999).

1950년대 민권운동의 시기까지 미국인이 숭상한 원칙은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미국주의(Americanism)’라고 통칭되는 단일한 미국의 사회문화 체계로 미국화 되는 것이었다. 미국의 주화에 각인된 “다수로부터 하나로(E Pluribus Unum)”라는 문구나 ‘용광로(melting pot)’의 비유가 이런 이념을 반영한다. 여기서 암묵적인 가정은 여러 다양한 민족의 사회문화적 요소를 질료로 하여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식민 시대 초기에 영국계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된 주류 문화에 새로운 이주민을 흡수시키는 것을 의미했다(Zelinsky, 2001). 이러한 이념은 WASP 문화가 여타 인종민족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과거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이 쇄도했을 때 항상 토착주의운동(nativism)이 일어나고 집단적인 폭력이 동원되면서 외래적인 요소가 자리 잡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다. 그 결과 영국계 이외의 유럽의 이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언어와 관습을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동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흑인의 민권운동은 이러한 WASP의 문화적 우위와 지배에 공식적으로 도전하였다. 마틴 루터 킹이 이끈 민권운동을 통해 흑인들은 미국 사회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블랙파워” 혹은 “검은 것이 아름답다”는 구호를 내걸고 흑인 문화의 독자적 정체성을 주창하였다. 민권운동은 흑인의 참정권을 획득한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소수자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여성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촉구하는 여권운동으로 이어졌으며, 1970

년대 들어서는 인디언, 히스패닉, 아시아인, 동성애자 등 다른 소수자의 자각을 불러왔다. 이러한 사회문화운동은 한편으로는 참정권이나 차별 철폐와 같이 사회적 권리를 되찾으려는 집단적인 정치적 운동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속한 인종민족 집단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문화적 운동으로 양면에서 진행되었다(Aguirre and Turner, 2001). 흑인을 선두로 하여 자신의 뿌리와 고유문화를 찾는 노력을 벌이면서, 과거 백인 주류 문화에 의해 오명이 씌워지고 무시되어 왔던 것을 새롭게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미국 역사에서 흑인과 함께 가장 부정적인 이미지로 매도된 인디언 또한 사회적 권리 찾기와 문화 회복 운동에 나섰으며,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른 소수자들도 자신의 권리와 집단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주류의 정통성에 반기를 들고 소수 집단 문화의 시민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다문화주의자의 노력이 봇물처럼 터졌다. 이들은 “왜 자신은 같은 미국인이면서도 자신의 뿌리와 고유한 문화유산이 미국인의 정체성의 일부가 될 수 없는가?” 하는 도발적인 질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용광로로 표현되는 미국화 과정에 내재된 문화적 억압을 드러내려 했으며, 미국 문화에서 소수자 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했다. 이들은 소수자의 정체성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다양한 문화 현장에서 전개하였다. 교육과 역사는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이다. 이들은 교육과 역사 분야에서 기존의 주류에 대한 도전을 집중적으로 전개했다. 또한 학계와 예술계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유산을 발굴하고 고유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전개했다. 그 결과 미국 문화가 서유럽계 백인 중심의 것만이 아니라 소수 인종민족의 다양성을 포괄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Steinberg, 2000).

## 2). 다문화주의의 논쟁

다문화주의 옹호자들은 각 민족 문화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를 상호 존중함으로써 미국 문화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이질적인 요소 간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한다(Hartman and Gerteis, 2005). 그러나 기존의 문화적 정통에 반기를 드는 다문화주의의 주장은 전통을 수호하려는 보수주의자의 격렬한 반발과 마주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미국 정신의 종말(Closing of the American Mind)』(1987)에서 다문화주의자들의 주장은 미국의 문화적 수준을 타락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서구 문명의 문화적 유산은 시간과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는 가치를 갖는데 이를 깊이가 얇고 저급한 다른 문화적인 것들과 같은 수준으로 놓는 것은 문화적인 상대주의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다문화주의자의 주장에 따라 모든 문화를 고루 다루는 교과과정을 학습한 학생은, 자신이 속한 인종·민족의 문화에 대한 지식과 친밀도는 높아질지 모르나 미국에 대한 정체성은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각자 자신을 흑인, 인디언, 아시아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아일랜드인의 문화에 동일시하면 할수록 미국 문화의 통일성은 약화될 것이다. 미국 문화의 단일한 기초를 공고히 하는 것은 미국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다문화주의자의 주장처럼 각자의 문화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계속 지키며 재생산된다면, 결국 캐나다의 퀘벡 문제나 유고슬라비아, 구소련 연방의 분열과 같은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다(Schlesinger, 1992; Brubaker, 2001).

이러한 비판에 대해 다문화주의자들은 통일된 미국의 가치에 회의를 제기하며, 미국의 용광로 이론은 시대착오적이며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라고 주장한다(Takaki, 1993; Yinger, 1994). 미국의 실체가 문화적 다양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단일한 문화로 두드려 맞추려고 하는 것은 문화적 폭압이다. 미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민족 중 유독 영국계 백인 신교도, 그 중에서도 남성 중심의 문화만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다른 인종이나 성은 무시하고 억압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발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미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이로울 것이 없다. 다양한 인종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서로를 이해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은 미국의 자산이므로 학생들이 이러한 다양성을 체감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미국을 접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진실한 미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다(Nieto, 1996). 자신이 속하지 않은 인종민족의 문화에 대한 친밀도를 높임으로써 다인종민족으로 구성된 미국 사회는 갈등의 소지를 줄이면서 훨씬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이다. 흑인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것이며, 여성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남녀 관계가 더욱 풍부하고 동등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Barry, 2001).

다문화주의 논쟁은 근본적으로 문화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지배 집단과 소수자 집단 사이에 벌어지는 권력 투쟁이다(Hartman and Gerteis, 2005: 22). 다문화주의 공방은 이론적인 논쟁을 근거로 하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다양하게 벌어졌다. 특히 영어 이외 언어의 공용화 논쟁과 다문화주의를 반영한 교육 내용의 수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미국인 여섯 명 중 한 명이 집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영어 이외 언어의 공용화 논쟁은 실제로 미국 사회 내에 다문화가 병존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회문화적 응집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에서 백인 주류 사회로부터 전국적인 반대 운동을 촉발시켰으나 히스패닉이 많은 남서부 지역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대립은 1990년대 초반 남서부의 여러 주에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영어만을 공용어로 인정한다는 법을 제정하도록 하였다. 이중 언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자 한 사람들은 소수자에게 주류 언어와 문화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그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Huntington, 2005).

다문화주의는 전반적으로는 수용되었으나 구체적 주장의 많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brams, 2006). 다문화주의 방향으로 학교를 개혁하자는 운동은 1980년대 후반 이래 미국 학생의 학력 수준이 저하되고 청소년 범죄, 마약, 미혼모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상당 부분 설득력을 잃었다. 영어이외의 언어로 이민자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영어 이외의 언어도 공용어로 인정하는 정책은 90년대 말 반대에 부딪쳐 결국 폐기되었다. 그럼에도 다문화주의 운동을 계기로 하여 미국 사회가 여성과 소수 인종민족의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흑인과 인디언의 역사적 역할과 문화적 고유성에 대한 긍정적 서술이 교육 내용에 많이 삽입되었으며 다양한 소수자의 견해와 문화를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시, 소설, 영화, 음악, 미술, 요리, 건축양식, 축제 등에 고유의 인종민족적인 성격이 반영된 사례를 흔히 볼 수 있게 된 점은 다문화주의 운동의 성과이다. 근래로 올수록 과거에 소홀히 여겼던 소수자 집단의 문화에 대한 재발견과 인정이 확대되며 문화계에 소수자의 진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 3). 다문화주의 운동의 쇠퇴

1990년대 중반부터 다문화주의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다문화주의 운동의 쇠퇴를 지적하는 글이 증가하기 시작한다(Baubock, 2002; Kundani, 2002; New York Times, 2006). 이들은 미국 사회의 공통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주의에서 다양성을 수용하는 노력이 지나쳐서 미국적인 삶의 방식을 위협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주류 집단 내에서 확산된 결과이다. 보수적인 주류의 입장을 대변하는 헤리티지재단, 아메리칸엔터프라이즈, 더네이션, 등의 싱크탱크와 지성지에서는 연이어 다문화주의를 공격하는 모임과 글을 쏟아내었으며, 앨런 블룸, 사무엘 헌팅톤, 어빙 크리스톨 등 여론을 주도하는 지식인들은 다문화주의 공격에 앞장섰다.

90년대 중반에 들어 다문화주의 담론이 동력을 상실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중첩되어 있다. 첫 번째로 1970년대 중반 이래 전개된 미국 경제의 변화로 소수자의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폭이 줄었다. 미국 경제는 197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 극심한 정체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모든 집단이 동등하게 겪은 것은 아니다. 경제 구조조정(Restructuring) 과정 속에서 백인 남성, 생산직, 중류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악화되었다. 백인 남성 생산직 근로자의 상대임금은 하락하였으며 이들의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여성은 이 기간 동안 경제활동에 더 많이 진출했으며 상대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아시아인과 히스패닉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흑인 중류층이 두껍게 형성되었다. 기존의 주류 집단인 백인 남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사회문화적 노력에 대한 저항은 갈수록 거세졌다.

둘째, 다문화주의가 소수자의 정치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Barry, 2001). 소수자의 실업, 빈곤, 낮은 교육 수준, 거주지 격리, 영어 구사력의 부족, 정치적 소외 등 소수자의 삶을 억압하는 정치경제적 문제들에 다문화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도전하지 못한 것이다. 1950년대 민권운동 이래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온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1980년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향상의 속도가 약화되었다가 1990년대 들어서는 정체 상태에 접어들었다. 흑인 빈곤율은 80년대 후반 이래 정체하였으며, 남녀 임금격차 또한 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개선되다가 90년대 들어 정체하였다. 공화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고 소수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정책들이 점차 무력화되면서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주의 운동의 추동력이 떨어진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다문화주의 운동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쿠프만스 등(Koopmans, et al. 2005)에 따르면 유럽에서 다문화주의는 거주지 분리를 촉진시켰으며 이주자들이 노동시장과 교육체제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함으로서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주장한다. 다문화주의적 정책이 정부의 공공복지 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한 나라가 인종 민족적으로 다양하면 할수록 그 나라는 재분배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Banting and Kymlicka, 2006). 인종 민족적으로 다양할수록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의 수준은 낮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수자의 다양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다문화주의자의 주장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기존의 다문화주의 담론은 인종이나 성과 같은 구조적인 권력의 불평등과 그것이 낳은 사회적 배제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무비판적이고 비정치적인 문화 담론을 생산해 낸다고 비판한다. 한 사회가 문화, 종교, 인종, 성, 및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복합적으로 형성된 불평등을 대응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화적 다양성을 주

장하는 설득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셋째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사회와 소수자 문화의 내적 동질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소수자 사회와 문화는 동질적이지 않다. 예컨대 흑인 중류층은 흑인 빈곤층보다는 백인 중류층과 관심을 더 많이 공유하며, 아시아인 내에서도 집단 간 불평등의 정도는 매우 크다. 소수자의 문화를 단일하며 내적으로 조화롭고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실재와 다르다. 보편적인 가치를 통해 극복될 수 있는 인종과 민족의 구별을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제 하에 고의로 고착시킬 수 있다. 소수자 집단 내의 다양성을 억제함으로써 주류 집단과 소수자의 관계와 유사한 불평등 관계를 소수자 문화 내에서 재생산한다. 소수자 문화 속에서도 전통적인 것의 문화적 강압, 개혁의 움직임과 충돌, 새로운 것과의 혼합, 등과 같이 역동적인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화석화된 형태로 소수자 문화를 파악하는 것은 다양성을 억압하는 행위이다(Wieviorka, 2005).

넷째, 전통적인 미국적 가치에 도전하는 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이문화의 이질성에 대해 미국 주류 사회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1960년대 후반 이래 기존의 유럽 중심의 주류 문화권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아시아, 중남미, 이슬람,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늘어나면서 미국의 주류 사회와 사회문화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은 빈도가 더 잦고 두드러져 보였다. 자녀에 대해 부모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관습, 일부다처제를 용인하는 관습, 여성의 할례를 강요하는 관습, 집단을 위해 개인의 권리를 희생하는 관습, 등이 미국적인 가치 및 미국인의 생활양식과 자주 충돌하게 되면서 문화상대주의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주의적 가치나 인권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게 되었다(Joppke, 2004; Huntington, 2005).

외래문화의 위협에 대해 미국의 가치를 방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특히 2001년에 발생한 월드트레이드 센터의 테러 사건으로 더 강력해진 것 같다. 1990년대 중반 이래 연이은 테러 사건에 대해 미국 사회는 외래적인 것이 미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미국 사회의 배타적 태도가 높아졌다. 여론 조사에서 이슬람에 대한 용인의 정도는 현격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Gallop Center for Muslim Studies, 2005). 근래에 이민자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높아진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주의에 관한 권위적 연구자인 킴리카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가 쇠퇴했다는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Kymlicka, 2010). 그는 다문화주의가 사소한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 반면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배제나 인권과 같은 삶의 중심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원주민의 토지 소유권 주장이나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주류 사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다문화주의자의 주장에 반격이 거세기는 하지만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소수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다만 근래에 유입된 이민자의 사회적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구의 민주주의적 전통은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소수자에 대한 억압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경감된 것은 아니다. 즉 그는 다문화주의의 쇠퇴는 과장된 것이며 단지 근래에 다양한 이민자의 유입에 대한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진단한다.

## 2. 다문화주의의 현주소

미국 사회에서 민권운동의 연장선에서 전개된 다문화주의 운동은 소수 인종민족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여기에서는 미국인들이 다문화주의 이념 및 소수 인종민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험적인 조사 자료를 통해 검토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전국여론조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조사한 General Social Survey 2002 자료를 사용한다. 이 자료는 1972년 처음 조사가 시작된 이래 1994년부터 격년으로 전환하여 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확률 표집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다. 자료의 수집은 일대일 대면조사로 이루어지며 미국인의 태도와 관심사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에 조사된 General Social Survey는 특히 미국인의 민족적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로 다양한 문항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다문화주의 주제와 관련하여 본 분석에서 사용하는 유효 사례 수는 2,730명이다. 이들을 인종별로 구분하면 백인이 79.1%, 흑인이 14.8%, 기타 인종이 6.0%를 차지하며 히스패닉은 7.7%를 차지하여 흑인은 전체 인구의 비율보다 과대 표집된 반면 히스패닉은 과소 표집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를 미국의 센서스 자료의 비율에 맞추어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한 수치를 사용한다.<sup>1)</sup>

이 조사 자료에서 다문화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문항을 사용하였다. 먼저 다문화주의와 이에 대비되는 동화주의에 대해 각각 의견을 조사하였다. 뒤에 밝혀졌지만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미국인의 생각에서 반드시 정반대의 대척점에 위치한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주의의 수용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만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개별 인종민족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지속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라는 질문에 ‘강한 찬성’에서 ‘강한 반대’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다문화주의와 대체로 반대 입장에 있는 동화주의는 “원활하게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 소수인종민족의 구성원들은 주류 미국 문화의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질문, 및 “인종민족적인 차이가 약화되거나 무시될 때 미국 사회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는 질문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sup>2)</sup>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에 대한 태도를 묻는 세 개의 주요 변수 이외에 몇 가지 연관된 문항이 본 분석에 활용된다. 첫째는 소수인종민족의 독립된 정체성과 관련한 문항이다. 소수인종민족의 독립된 구분의 중요성을 묻는 문항으로 “미국에서 소수인종민족 집단은 서로 매우 상이하며 뚜렷이 구별된다”는 질문 및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둘째는 소수인종민족과 정서적으로 친근한 정도이다. 미국의 주요 인종민족 집단인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에 대해 정서적으로 친근한 정도를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보조적으로 ‘백인’에 대해 친근한 정도도 함께 조사하였다. 모든 변수는 다문화주의를 수용할수록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표 1>은 이 변수들의 명칭과 문항 및 평균값을 보여준다.

1) General Social Survey 2002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3.norc.org/GSS+ Website> 참조.

2) 본 연구에서 동화주의는 태도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두 개의 변수로 측정하였다. 이 두 개의 변수를 합성하여 하나로 묶을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개의 변수를 병렬적으로 표기한다.

<표 1>. 변수 명칭과 질문 문항 및 평균값

변수 명칭	값의 범위	평균 (표준 편차)	질문 문항
다문화주의	1~5	4.06 (.86)	만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개별 인종민족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지속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
동화주의1	1~5	2.49 (1.05)	원활하게 사회가 기능하기 위해 소수인종민족의 구성원들은 주류 미국 문화의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
동화주의2	1~5	3.04 (1.25)	인종민족적인 차이가 약화되거나 무시될 때 미국 사회는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인종민족 구분	1~5	3.52 (.92)	미국에서 소수인종민족 집단은 서로 매우 상이하며 뚜렷이 구별된다.
인종민족 정체성	1~5	3.42 (1.53)	특정 인종민족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종민족 친근성	1~9	6.56/ 6.29/ 6.40/ 7.12	흑인/아시아인/히스패닉/백인과 얼마나 가깝게 느끼는가?

위의 표에서 미국인은 전반적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인의 평균적인 성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다문화주의에 대해 미국인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동화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또한 미국인은 인종 민족 간에 뚜렷한 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종민족 소속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백인에 대해 가장 친근하게 느끼지만 대체로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 등 소수자 모두에 대해 어느 정도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인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다문화주의를 대체로 옹호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 같지는 않다.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1 및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2 변수들 간에 피어슨 상관계수는 0.12~0.14에 불과하다.<sup>3)</sup> 즉 다문화주의에 동조할수록 동화주의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둘 간에 관계는 그리 밀접하지 않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표 1>에서 보면 다문화주의에 찬성하는 만큼 동화주의에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주의에 찬성하는 정도는 이 변수의 평균값 4.06에서 보듯이 매우 높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만일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개별 인종민족 집단은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지

3) 본 분석에 사용된 사례 수는 2,730개에 달하므로 대부분의 통계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만 별도로 언급한다.



속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동화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정도는 두 개의 동화주의 변수 평균이 각각 2.49와 3.04인데서 알 수 있듯이 그리 크지 않다. 즉 미국인들은 소수 인종민족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전통을 지속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미국 사회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 소수집단이 미국의 주류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인들은 다문화주의를 원칙적으로는 수용하지만 소수 인종민족은 어느 정도 자신의 문화적 차이를 약화 내지는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미국인이 다문화주의에 대해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인은 자신이 백인인가 여부에 따라 다문화주의에 관해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표 2>에서 보면 백인은 비백인보다 일관되게 다문화주의에 대해 덜 긍정적이다. 반면 소수자는 백인보다 다문화주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동화주의에는 반대한다. 소수자는 자신의 인종민족 정체성이 자신을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특이한 점은 백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인종민족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자신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백인들 내에서 민족 집단 간에 민족 정체성의 차이는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는 하지만(Alba, 1990), 표에서 보면 아직 많은 백인들은 자신의 민족 정체성에 대해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다문화주의에 대한 백인과 비백인간 태도 차이

구분	다문화주의	동화주의1	동화주의2	인종민족 구분	인종민족 정체성
백인 (A)	4.01	2.42	3.00	3.51	3.16
비백인 (B)	4.22	2.78	3.20	3.59	4.42
(B-A)	0.21**	0.36**	0.20**	0.08	1.26**

주) \*\*: p<0.01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함.

<표 2>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매우 상이하며 구별되는가’ 하는 질문(민족구분)에 대해 백인과 비백인간의 답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소수자이건 혹은 주류 집단에 속해있건 간에 미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민족 집단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점에 한결같이 동의한다. 백인의 경우 소수자 집단이 주류 집단과 구분된다는 사실에 소수자 집단 구성원만큼은 관심을 가질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백인은 비백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다. 물론 백인이 소수자 집단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과 이 차이가 얼마나 존중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는 하다. 예상대로 다문화주의를 옹호할수록 소수자 집단의 차이를 더 잘 인지하며(r=0.17), 소수자집단이 백인보다 인종민족 정체성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다. 인종민족 정체성이 높을수록 다문화주의를 더 강하게 옹호한다(r=0.19).

<표 3> 인종 민족 간 친근한 정도

	흑인에 대한 친근함	아시아인에 대한 친근함	히스패닉에 대한 친근함	백인에 대한 친근함
흑인	7.90	6.41	6.53	6.72
아시아인	6.14	6.45	6.31	6.50
히스패닉	6.45	6.26	7.55	7.14
백인	6.33	6.26	6.34	7.22
전체	6.56	6.29	6.40	7.12

주) 이 표의 수치는 가장 친근함(9)에서 가장 냉랭함(1)의 척도 범위에서 각 집단에 대한 감정의 평균치를 의미한다.

다문화주의 이념에 따를 때 소수 인종민족의 고유문화를 존중한다고 하지만 미국인은 소수 인종민족에 대해 친근 혹은 소원한 감정을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3>에서는 인종민족에 따라 다른 인종에 대해 얼마나 친근/소원한 느낌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미국인 전체로 볼 때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의 순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인이 친근감을 느끼는 대상은 사회경제적 순위와는 차이가 있다. 예상대로 흑인과 히스패닉은 각각 자신이 속한 소수 인종민족을 가장 친근하게 느끼고 있으며, 흑인은 자기 인종에 대해 특별히 더 친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흑인이 미국에서 가장 차별받는 소수집단이어서 자신이 속한 우리 집단(in-group)에 대한 애착이 가장 크기 때문일 것이다. 흑인에 대해 흑인 다음으로 가장 친근하게 느끼는 집단은 히스패닉이다. 흑인과 히스패닉은 둘 다 미국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이므로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상호간에 더 친근하게 느낄 것이다.

반면 아시아인은 다른 소수 인종민족과 달리 동료 아시아인보다 백인을 더 친근하게 느낀다. 이는 아마도 아시아인 집단 내에 민족 간 차이가 매우 커서 단일한 소수집단으로서 동질감을 덜 느끼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시아인이 흑인이나 히스패닉에 대해서도 친근감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이는 미국의 주류 집단인 백인의 유형과 유사하다. 즉 아시아인은 자신이 속한 아시아인을 포함하여 다른 소수 인종민족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소수자의 편에서보다는 주류 집단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한편 흑인과 아시아인은 서로 간 친근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집단이다. 흑인도 아시아인을 가장 멀리 느끼지만 아시아인 역시 흑인을 가장 멀리 느낀다. 이는 아시아인이 ‘모범적인 소수자’(model minority)로서 흑인의 낙후성을 비판하는 데 흔히 이용되었다는 점과, 많은 아시아인이 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중간 거래자(middleman)’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혀온 것이 원인이다(Aguirre and Turner, 2001). 이 결과는 다문화주의에서 소수자 집단의 고유문화를 존중한다고 하여도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소수 집단 상호간에도 서로에 대해 상당한 편견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표 4>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와 인종 민족 간 친근감의 관계

	흑인에 대한 친근함	아시아인에 대한 친근함	히스패닉에 대한 친근함	백인에 대한 친근함
다문화주의	0.19**	0.18**	0.19**	0.03
동화주의1	0.18**	0.10**	0.16**	0.02
동화주의2	0.06**	0.05**	0.05**	0.00

주) 수치는 피어슨 상관계수임. \*\*, p<0.01에서 유의미함.

<표 3>에서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에 대한 태도는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친근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흑인, 아시아인, 히스패닉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는 반면, 동화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은 소수 인종민족에 대해 냉랭한 감정을 가진다. 소수 인종집단에 대한 감정적 친근함/소원함은 인종적 편견을 반영하므로 다문화주의는 인종적 편견을 불식시키는 데 기여함을 확인한다. 반면 동화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 소수 인종민족집단에 대해 냉랭한 감정을 가진다는 사실은 동화주의가 인종적 편견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다문화주의 및 동화주의와 인종적 편견 사이에 인과적 연관을 유추하기는 어렵다.

<표 5> 다문화주의의 회귀분석

독립 변수	모델 1	모델 2
연령	-.09**	-.06*
성별 <sup>1)</sup>	.06**	.04
학력	.09**	.10**
지역 <sup>2)</sup>	-.03	.03
소득	-.01	-.06
소수자 <sup>3)</sup>	.08**	.08**
정치적 견해 <sup>4)</sup>		.15**
종교 <sup>5)</sup>		-.07*
R <sup>2</sup>	0.164**	0.245**

주) 표의 수치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보여줌. \*, p<0.05, \*\*,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1) 남성(0), 여성(1) / 2) 남부이외 지역(0), 남부(1)

3) 백인(0), 비백인(1) / 4) 보수주의(0), 진보(1)

## 5) 개신교 이외의 종교 (0), 개신교 (1)

다문화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표 5>에서 다문화주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 및 사회경제적 요인을 설명 변수로 한 모델(1)과 이것에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믿음을 더한 모델(2)을 보여준다. 모델 1에서 보면 연령, 성별, 학력, 본인이 소수자인가 여부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본인이 소수자일수록 다문화주의를 더 옹호한다. 반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믿음을 설명 변수로 더한 모델 2는 앞의 모델 1과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연령과 성별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사실이다. 즉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믿음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젊을수록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다문화주의를 수용했었는데, 실재는 연령이나 성별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 종교적 성향에 차이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일수록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므로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 반면 아무리 젊고 여성이라도 보수주의적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다문화주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반면 교육 수준이 다문화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정치적 성향과 종교적 성향이 설명변수에 더하여져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학력과 정치적 성향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이례적이다. 이 결과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태도에 교육과 정치적 성향이 독립적으로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침을 뜻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으면 정치적 성향이 어떠한 다문화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거꾸로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교육수준의 고하에 상관없이 다문화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이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고 리버럴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은 다문화주의에 매우 긍정적인 반면, 반대로 교육수준이 낮고 보수적인 정치 이념을 가진 사람은 극도로 다문화주의에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실제 이 두 집단의 다문화주의 변수 값을 비교한 결과 대학을 졸업하고 리버럴한 정치 성향을 보이는 사람의 다문화주의 변수 값은 4.92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반면, 고졸 이하이며 보수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은 1.79점으로 다문화주의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개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다문화주의에 대해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미국의 주류 문화가 개신교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다문화주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남부 지역이 소수 인종민족에 대해 배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분석 결과를 보면 남부지역에 거주하는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력이나 정치적 견해가 실제로 더 중요함을 확인한다. 즉 남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거나 진보적인 경우 다른 지역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다문화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근래에 들어 남부 지역으로 외부인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과거에 전통적인 남부의 폐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경향과도 부분적으로 상통한다.

### 3. 토론 - 미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의 미래

다문화주의 운동의 결과 인종 민족적 정체감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미국 같은 다인종민족 사회에서 개별 인종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과거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같이 근래에 아시아나 중남미에서 이민 온 사람의 경우에도 세대가 계속되면서 미국화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은 『우리는 누구인가(Who Are We?)』(2005)라는 제목의 책에서 미국 남서부에 히스패닉 이민자들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미국의 정체성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히스패닉을 실제 조사한 결과 그들의 이세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미국적인 생활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류 사회에서 성공하려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itrin, et al. 2007). 소수 민족 고유의 학교에서 교육받고 민족 고유의 언어와 관습을 유지하는 것이 앵글로색슨족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류 사회에서의 성공에 불이익이 된다는 의식이 존재하는 한 다문화적 전통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유럽계 이민자의 후손들에게서 자신이 속한 민족적 상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성향이 발견된다. 학자들이 '상징적 민족성'(symbolic ethnicity)라고 명명하였는데, 실질적인 삶의 기회와 연관된 민족성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과 선택의 대상으로 민족적인 상징이 수용되는 경향을 지칭한다(Gans, 1979; Alba, 1990). 유럽계 민족의 후손들 사이에서 민족적인 축제나 민족적 관습이 선택적으로 되살려지기는 하나, 이러한 상징이 담고 있던 원래의 의미나 사회적 맥락은 탈색된다. 이러한 민족적 상징은 자신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채택된다. 사회적 삶의 기회와 연결되지 않고 개인의 취향으로서 선택되는 민족적 상징이 얼마나 민족과 연관되어 지속될지는 분명치 않다. 예컨대 아일랜드인의 축제였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는 현재는 아일랜드 민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미국 문화의 일부로 수용되었다.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과 마찬가지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또한 종교나 민족적인 성격이 탈색된 문화적인 메뉴의 하나가 된 것이다.

인종민족 집단 간 문화적 차이는 사회계층의 차이와 연결되어 있다(Gans, 2005; 이현송, 2006). 과거에 소수자로 취급되던 사람들이 주류 집단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상위로 이동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근래에 유대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백인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기가 초래되었다(Shapiro, 1997). 유대인 중 비유대인과 혼인하는 비율이 높아졌으며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유대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면서 사회생활에서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각할 기회가 줄어들었으며, 유대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통해 자존감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감소한 것이다. 외부적 위협이 사라졌을 때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가치를 옹호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그 결과 그들의 문화는 단지 '상징적 가치'만을 지닌 개인의 선택의 대상이 된 것이다. 학자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궁극적으로 유럽계 백인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문화로 동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Alba, 1990).

반면 아프리카나 아시아 및 중남미 출신의 유색인은 과거 유럽의 이민자들과는 다른 적응 과정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백인 민족 집단은 세대가 지나면서 단일한 백인 집단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나 유색인은 이러한 단일 집단에 합류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유럽 문명 속에 뿌리 깊은 유색인에 대한 인종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 사회에서 백인과 유색인의 구별은 계속될 것이다. 유색인이 아무리 백인의 주류 사회문화에

동화된다고 해도 구별된 집단으로 인식되는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구별이 계속되는 한 백인과 유색인 간에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가 소멸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Zellinsky, 2001).

개별 인종민족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주류 사회에 동화되는 속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일본인은 한국인이나 중국인보다 미국 주류 사회에 더 빨리 동화되고 있다. 일본인 중 백인과 혼인하는 비율은 절반을 넘어서는데, 이 인종이 결합한 경우 개별 인종에 대한 정체성은 현저히 약화된다. 흑인의 경우 흑인 이외의 사람들과 혼인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흑인과 결합한 복합인종의 경우에도 역시 개별 인종에 대한 정체성은 현저히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Beau and Lee, 2009). 근래에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이 인종민족과 혼인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개별 인종 민족 내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자신의 인종민족 문화를 유지하는 정도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한편 히스패닉은 새로운 이민자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본국과의 지리적 근접성 등의 이유로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오래도록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히스패닉 이세의 경우 영어를 모국어로 하고 미국의 생활양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는 하지만, 스페인어를 동시에 구사하며 히스패닉 문화와의 친밀도 또한 계속 유지한다. 히스패닉 주민이 증가하면 이들이 집중 거주하는 지역에서 히스패닉 문화의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주류 문화를 위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Citrin, et al., 2007).

미국에서 백인의 인구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유럽계 백인 중심의 사회문화적 주도권이 앞으로 계속 유지될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흑인과 스페인계와 아시아계를 합친 인구가 백인보다 우위를 차지하게 될 21세기 후반에 가서는 현재 하와이에서 보는 것처럼 유색인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때에는 월슨이 주장했듯이 계급의 차이가 인종의 차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Wilson, 1980). 그러나 백인이 소수를 차지하는 하와이에서도 영국계 백인의 문화가 주류로 통하는 것을 보면, 백인이 다수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도 영국계 백인의 문화적 종주권은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다만 앞으로 미국의 주류 문화 속에 다양한 하위문화를 더욱 많이 포용하리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1년 뉴욕 테러 사건 이후 미국 사회에서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용성이 떨어진 것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 자료의 한계를 간단히 언급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2002년 조사되었기 때문에 2001년의 테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수용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인종민족의 문화적 특수성이 약화되어야 한다고 미국인은 대체로 생각하지만 엄청난 테러의 기억이 생생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2001년의 테러가 일시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자극하였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았다(김형인, 2007). 다양한 인종민족으로 구성되며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미국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된 듯하다.

## 참고문헌

- 김옥동.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논집』 30(1):29-49. 1998.  
김형인. “미국의 다문화주의의 향방: 세계화와 9.11의 여파.” 『국제지역연구』 11(2): 175-202. 2007.

이현송. 『미국문화의 기초』. 한울아카데미. 2006.

Abrams, Richard M. *America Transformed, sixty years of revolutionary change, 1941-200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Aguirre, Adalberto, Jr. and Jonathan Turner. *American Ethnicity, the dynamics and consequences of discrimination*. 3rd ed. New York: McGraw-Hill. 2001.

Alba, Richard. *Ethnic Identity: The Transformation of White America*. Yale University Press. 1990.

Barry, Brian. *Equality an Culture: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Cambridge: Polity Press. 2001.

Banting, Keith and Kymlicka, W. eds. *Multiculturalism and the Welfare state: recognition and redistribution in contemporary democrac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Baubock, Rainer. "Farewell to Multiculturalism? Sharing values and identities in societies of immi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mmigration*, 3(1): 1-16. 2002.

Bean, Frank, and Jennifer Lee. "Plus Sa Change...? Multiraciality and the Dynamics of Rac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al Issues*, 65(1): 205-219. 2009.

Brubaker, Rogers. "The Return of assimila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24(4): 531-548. 2001.

Bloom, Allan.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New York: Simon & Schuster. 1987

Citrin, Jack, A. Lerman, M. Murakami, and K. Pearson. "Testing Huntington: Is Hispanic Immigration a threat to American identity?" *Perspectives on Politics* 5(1): 31-48. 2007.

Fredrickson, G. M. "Models of American ethnic relations: a historical perspective. In Prentice, D. and Miller, D.T. (eds.), *Cultural Divides*. Russell Sage, New York. 1999.

Gallup Center for Muslim Studies,

<http://www.gallup.com/se/127907/gallup-center-muslim-studies.aspx>

Gans, Herbert L. "Symbolic ethnicity: the future of ethnic groups and cultures in America." *Ethnic & Racial Studies* 2(1):1-20. 1979.

Gans, Herbert J. "Race as class." *Contexts* 4(4): 17-21. 2005.

General Social Survey. <http://www3.norc.org/GSS+ Website>

Hartmann, Douglas, and Joseph Gerteis. "Dealing with Diversity: Mapping Multiculturalism in Sociological terms." *Sociological Theory* 23(2): 22-49. 2005.

Hollinger, David. *Post-ethnic America: Beyond Multiculturalism*. New York: Basic Books. 2006.

Huntington, Samuel. *Who are We? The Challenges to American's National Identity*. New York: Simon & Schuster. 2005.

Joppke, Christian. "The Retreat of multiculturalism in the liberal state: theory and

- polic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5(2): 237-257.
- Koopmans, R., Statham, p., Guigni, M. and Passy, F., *Contested citizenship: immigration and cultural diversity in Europe*. Minneapolis, MI: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5.
- Kundani, Arun. "The Death of Multiculturalism." London: Institute of Race Relations. <http://www.irr.org.uk/2002/april/ak000001.html>.
- Kymlicka, Will. "The Rise and fall of multiculturalism? New Debates on inclusion and accommodation in diverse societi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61: 97-112. 2010.
- New York Times. "The Death of Multiculturalism" April 27. 2006.
- Nieto, Sonia. *Affirming Diversity: The Sociopolitical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White Plains, NY: Longman. 1996.
- Nobles, Melissa. 2000. "History counts: a comparative analysis of racial/color categorization in US and Brazilian census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1). pp.1738-1745.
- Shapiro, Edward. "The Decline of Jewish Identity." *Society*, 1997.
- Schlesinger, Arthur, Jr. *The Disuniting of America: reflection on a multicultural society*. New York: W.W.Norton. 1992.
- Steinberg, Stephen. *Race and Ethnicity in the United States*. 2000.
- Takaki, Ronald. *A Different Mirror: A History of Multicultural America*. Boston: Little, Brown & Co. 1993.
- Wieviorka, Michael. "Is Multiculturalism the solution?" *Ethnic and Racial Studies*, 21(5): 881-910. 2005.
- Wilson, William Julius. *The Declining Significance of Race*. 2nd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Yinger, J. M. *Ethnicity: Source of Strength? Source of Conflict?*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4.
- Zelinsky, Wilber. *The Enigma of Ethnicity, Another American Dilemma*. University of Iowa Press. 2001.



## Abstract

# Development and Current State of Multiculturalism in the American Society

Lee, Hyun So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multiculturalism of American society is approached in two ways. The first is a conceptual one in which the whole development of multiculturalism is reviewed. The cause, proceed, debate, and retreat of multiculturalism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The second is an empirical approach in which the way Americans think of minorities is analyzed by using a national survey data. Here I hypothesize as follows. Since the multiculturalism has developed longer than half a century by now, Americans are considerably generous to the cultural differences of minorities. However, since assimilationism has been deeply rooted in American culture since the colonial period, the ideology that the minorities should give up their cultural uniqueness is not washed away that easily.

An analysis of General Social Survey 2002 suggests that even though Americans principally allow the minorities to keep the right to their cultural uniqueness, they still feel the need of the minorities adjusting to the mainstream for the smooth functioning of American society. Americans responds to multiculturalism differently depending upon their own racial and ethnic identity. The minorities have a very positive attitude to such ideology while the whites have passive posture. When the determinants of the attitudes towards multiculturalism are analyzed in a regression analysis, it turns out that educational attainment and political ideology has strongest impacts on the attitude. On the other hand, age, sex, region of residence, and religious affiliation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When all the aspects of multiculturalism are considered, I conclude the multuculturalism takes a firm root in the American society regardless of recent outbreaks of terrorist attacks.

Key words: multiculturalism, American society, American culture, assimilationism, race, ethnicity.

주제어: 다문화주의, 미국사회, 미국문화, 동화주의, 인종, 에스니시티.

논문접수일: 2012. 05. 11

심사완료일: 2012. 06. 01

게재확정일: 2012. 06. 15

이름: 이현송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부

주소: 서울 관악구 대학동 청광아파트 1동 1003호

이메일: [hslee@hufs.ac.kr](mailto:hslee@hufs.ac.kr)